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우리 대학에도?

1,100원, 1,800원, 4,800원 … 순서대로 삼각김밥과 컵라면, 그리고 컵밥의 가격이다. 식비 부담이 커진 대학생들은 편의점으로 향하지만, 마주한 것은 올라버린 가격과 여전히 가벼운 지갑뿐이다. 결국 편의점에서조차 느껴진 물가 상승은 굶주린 배를 부여잡게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한 줄기의 빛. 한국체대 학생들에게도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내릴까?

박서진 기자 psj3158gh@naver.com

천 원 학식 열광이 주는 의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17년도 쌀 소비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다. 5~6년 전부터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이야기가 작년부터 대학가를 넘어 국가를 들쭉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바탕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고민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찍었다. 2023년에는 3.5%의 상승률을 전망한다. 청년층은 이러한 물가상승률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조사한 ‘체감경제고통지수’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으로, 현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경제고통지

수는 25.1이다. 전체 평균 수치는 16.28로, 25.1은 전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은 어떤 부담을 지고 있을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인식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48개의 대학에서 2,076명이 응답했다.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56.1%의 학생들이 식비 지출이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한 ‘물가 상승 이후, 가장 먼저 줄인 지출 항목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77.2%의 학생들이 식비지출이라고 말했다.

경제침체, 물가 상승, 취업난이라는 아득한 현실 속에서 대학생들은 식비부터 줄여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찾아냈다.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



그러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모든 대학이 참여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전대넷은 작년 9월 7일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식 가격 인상 반대 및 천원의 아침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관해 “사업의 혜택을 받는 학생

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전국 330개의 대학교 중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학교는 10%도 되지 않는다”라며 사업 수혜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그 뒤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과 안민석 의원(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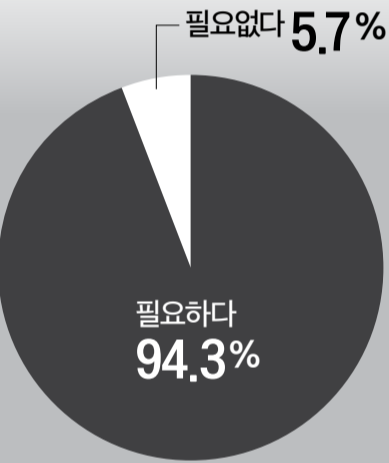
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이후 10월 21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상운 교육부 차관이 “적극적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윤석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2배 이상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을 7.78억 원에서 15.88억 원으로 증액했다. 우선 선정된 41개교(경희대, 고려대, 순천향대 등)를 포함하여 신규 대학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대학가는 ‘천원의 아침밥’으로 들떴다.

그러나 현실은 대학생들만 ‘천원의 아침밥’을 울부짖고 있었다. 추가 모집 소식에도 대부분 대학이 주춤거렸다. 그 이유는 뭘까?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식수 인원당 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식 원가에 농식품부 지원비 천 원, 학생이 내는 식비 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천원의 아침밥’ 1인당 단가는 3,000원에서 5,500원 사이의 값이다. 즉, ‘천원의 아침밥’이 완성되려면 필요한 학교 부담금이 1,000~3,500원 선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재정 상태가 어려운 국립대는 더욱 주저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원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체대 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나흘 동안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싶나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인원은 404명으로 학보사가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 중 가장 많은 응답 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학우들의 ‘천원의 아침밥’을 향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381명으로 94.3%의 학생들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중 46%(189명)의 학생이 ‘싼값에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91명(22.5%)이 수업 전에 가까

운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고 62명(15.3%)이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필요해서 골랐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라고 답한 23명(5.7%)의 학생 중 8명은 ‘아침에 학교를 오는 게 힘들’이라고 답했고, 다른 8명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우선순위에 맞다’라고 응답했다.

아침밥 종류를 선택하는 질문에 66.8%의 학생이 일반식을, 31.7%의 학생이 간편식을 골랐다. 일반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아침을 집밥처럼 먹고 싶어서(국, 반, 반찬)’에 응답한 학생이 59.2%(239명)로 가장 많았다. 간편식을 선택한 이유로 ‘빠른 아침 식사를 원해서’라는 응답에 69명이,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를 66명이 선택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심주용 학우(사회체육 18)는 “학식 비용으로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해도 약 13,000원가량이다. 평일만 계산해도 달로 치면 26만 원이다. 집 월세가 50만 원인데 그 절반 이상의 값이 식사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며 식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추가로 “우리 학교 규모에 천 원 학식은 어려울 것 같다. 학생이 2,000원 부담하여 아침을 먹는 방안은 어떨지 생각한다.”라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원했으며 간편식보다 일반식을 선호했다. 과연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가능할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2023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2차 모집하겠다고 기간을 4월 28일까지 연장했다. 그리고 4월 10일, 서울시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에 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 대학은 54개교 중 5개교(9.3%)만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저조 원인을 재정 부담 등으로 보고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차 추가 모집 소식과 서울시의 예산 지원 추진 소식까지, 점차 ‘천원의 아침밥’의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서 4월 27일 총무팀 박경환 행정주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경환 행정주사는 “4월 17일 추가 모집에 관한 공문이 오자마자 논의했다.”라며 사무국장, 총무과장, 생활협동조합, 총장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의 결과 재정 문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꼽았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농식품부에서 식수 인원당 주는 천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가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대학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지에 관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에 문의했다. 우리 대학에 서울시의 천원 지원 여부는 중요



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이다. 4월 27일 문의 결과 “현재 지원 일정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대한 최종 선정된 대학에 지원하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번엔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박 주무관은 “인건비도 문제다. 최저시급으로 인건비를 잡아도 하루 4명, 총 20만 원이 든다.” 이어 “예를 들어 8시에 아침밥을 제공하려면 새벽 5시에 일할 분을 구해

야 한다. 이른아침부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라며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전했다.

추가로 “사업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도로 농식품부에 내야 한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 추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정원에 따르면, 사업 참여 대학은 농식품부에 제시한 목표 식수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비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조식 미운영인 대학은 인원 추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후퇴

중요한 것은 다음 계획이다. 박 주무관은 “총장님도 관심 있는 사항.”이라며 “2학기에 발전기금 같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체적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대 변경 등의 방안을 밝혔다.

식수 인원당 원가 측정은 얼마인지 김효경 영양사에게 물었다. 그는 “식수 인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측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2학기에 한다면 일반식으로 밥과 국, 샐러드와 두 가지 반찬으로 구성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해당 인터뷰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2학기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농식품부의 지원을 안 받는 대신, 농정원에서 제시한 운영 지침인 식사 시간 제약(오전 7~11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4월에 임명된 8대 총장인 문원재 총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랑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대학은 타 국립 대학에 비해 예산이 적고 기부 금액도 많지 않은 편.”이라며 기부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학기에 ‘천원의 아침밥’ 기부금과 관련해 총동문회에 문의했다. 7대 총장이자 총동문회 현 회장인 안용규 회장은 “우리 대학에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쁠 것.”이라며 “현 총장님과 뜻을 같이해서 사업 재원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많은 학우가 관심 있는 사업이 1학기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학교 측이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학생회가 도울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학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학교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전했다.

다른 대학 사례로 현실화하기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국립대 두 곳(경상국립대, 공주교대)과 가톨릭대학을 취재했다. 인원 계측, 원가, 재정 마련 등과 같은 우리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 질문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경상남도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정확한 인원 계측 방법에 관한 질문에 경상국립대 정양덕 영양사는 “우리 대학은 원래 조식을 운영했던 대학이라 수월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재정 마련에 관해 묻자 “1인당 원가는 5,000원에서 5,500원이다. 학교에서 2,000원을 지원받고 1,500원을 생협 자체 예산에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로 아침에 일할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며 “우리 대학은 기존 참모급의 조리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재적학생 수가 1,400여 명으로 우리 대학(3,000여 명)의 반 정도 되는 규모의 대학이다. 국립대의 예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물었다. 공주교대 학생지원팀은 “학생이 내는 식비 천 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공주시(지자체)와 대학이 50:50 부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는 교수협의회에서 기부금을 모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일부 지원 중이다. 가톨릭대 교수협 회장 성기선 교수는 “돈의 크기 문제

가 아니라 상호 협업하여 문제를 끌고 나가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체대 교수님들도 충분히 사업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실 것.”이라며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도 상징적인 의미와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번 학기에 만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노력 중이다. 4월 중순에 임명되어 직무 수행한 지 며칠이 채 안된 문원재 총장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햇살이 구름 뒤에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다.